

## 1920년대 서정시언어의 몇가지 특징

양 영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있었기때문에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전집》 제8권 410페이지)

언어는 민족문화와 떼어놓을 수 없이 련관되어있다. 특히 해당 민족의 문학유산에는 당대 민족의 생활과 함께 민족어의 시대상이 비껴게 된다. 이로부터 민족문학유산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민족어발전력사와 그 합법칙적과정을 깊이있게 밝히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조선현대문학사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는 1920년대 서정시들에는 당시 문학언어의 본질적문제들을 파악할수 있게 하는 귀중한 언어자료들이 적지 않다. 특히 1920년대에 나온 서정시들가운데서 김소월(김정식)의 시를 위주로 하여 김억(김안서), 로자영, 홍사영, 김명순(김탄실) 등의 시들에 나타나는 언어적특징들이 대표적이다.

1920년대 서정시언어의 특징은 어휘표현사용과 어음론적, 문법론적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어휘표현사용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이다.

옛 어휘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하고있는것은 이 시기 서정시언어의 중요한 특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옛 어휘는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대대로 사용하여온 고유어를 말한다.

이 고유어속에 이미 완전히 소극화되어 현대조선어어휘구성에서 없어지다싶이 한 고어들이 남아있어 옛 어휘의 흔적을 찾아보게 된다.

속잎 푸른 고운 잔디 소리라도 내려는듯  
쟁쟁하신 고운 해별 눈뜨기에 바드럽네

(《춘강》 김소월)

《바드럽다》라는 단어는 《위태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현대조선어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고어이다.

便安<sup>ㄴ</sup>야 바드럽디 아니<sup>ㄴ</sup>시며 (《월인석보》 2: 56)

社稷<sup>이</sup> 바드라<sup>ㄴ</sup>뵈니 便安<sup>히</sup> 이췌줄 업스니라 (《삼강행실도》 충신 환이치사)

바드라울 틈 殆 (《석봉천자문》 30)

이 단어에 대하여 《조선말대사전 2》[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년]에서는 《빠듯하게 위태롭거나 걱정스럽다》는 의미와 함께 서정시 《춘강》의 실례를 들어 《눈부시거나 눈뜨기 조마조마하다》로 풀이하고있다.

아서라, 피곤한 길손은 자리잡고 쉴지어다

까마귀 쫓닌다

종소리 비낀다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김소월)

우의 시에서 《좃니다》는 《좃니다》의 현재종결형이라고 할수 있다. 《좃니다》라는 말 역시 현재로서는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의 시초로 추정되는 고어는 여러가지가 있다.

- 좃니다: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좃니노이다(《악학궤범》 동동)  
 피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악장가사》 서경별곡)  
 좃다<sup>1</sup>: 구루믈 좃놋다(《두시언해》 12: 32)  
 새 그리 또 조차 가니라(《두시언해》 24: 37)  
 좃다<sup>2</sup>: 이바디에 머리를 좃스 븡니(《룽비어천가》 95)  
 萬萬 衆生이 머리 좃습고 기썻바(《월인석보》 2: 51)

여기서 《좃니다》는 《좃아가다, 좃아다니다》라는 뜻이고 《좃다<sup>1</sup>》은 《좃다, 따르다》라는 뜻으로서 《좃니다》와 《좃다<sup>1</sup>》은 의미적으로 서로 유사한 단어들이다. 《좃다<sup>2</sup>》는 《조아리다(머리를)》라는 뜻으로서 《좃니다》나 《좃다<sup>1</sup>》과는 동음이의어이다.

어음구조적으로 《좃니다》와 가장 유사한것은 《좃니다》이며 그 어휘적의미로 보아서도 까마귀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능히 가능하지만 시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까마귀가 무엇인가를 좃아다니거나 따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 시는 구조적으로 볼 때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있다. 즉 매 련의 첫 구절들인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하염없기도 그지없다》,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조미조미하기도 끝없다》,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처량하기도 짝없다》,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유난히 다정도 할세라》라는 시행들이 대구적운률을 조성하면서 각각 그에 종속되는 여러개의 뒤구절들을 이끌어가고있다. 다시말하여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조미조미하기도 끝없다/ 저의 마음을 제가 스스로 늦구는이는 복 있나니/ 아서라, 피곤한 길손은 자리잡고 쉴지어다/ 까마귀 좃니다/ 종소리 비낀다/ 송아지가 <음매>하고 부른다/ 개는 하늘을 쳐다보며 짖는다》라는 단락에서 까마귀, 송아지, 개의 행동은 다 《조미조미하다》라는 단어에 의미적으로 종속되어있다.

《조미조미하다》는 현재는 쓰지 않는 말이지만 다른 련들의 첫 구절들에 나오는 어휘들인 《하염없다, 처량하다, 유난히 다정하다》의 대구적표현으로서 해질녘 풍경의 목가적정서에 대한 형상임이 틀림없다. 이 단어를 《몹시 조마조마하다》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시의 전반적정서가 《조마조마한》 어떤 다급하고 긴박한 정황이 아니라 완만하고 한가로운 분위기에 지향되고있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정당하다고 볼수 없다. 그러므로 그에 알맞는 《좃니다》의 고어로서는 《좃니다(좃아다니다)》가 아니라 《좃다<sup>2</sup>(조아리다)》가 적합하다고 할수 있다.

《강》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던 고어 《가람》도 나타나고있다.

-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접동새》 김소월)

- 평양에 대동강은 우리 나라에  
 굽기로 으뜸가는 가람이지요  
 (《춘향과 리도령》 김소월)

역사적인 어음변화의 결과 《아무》로 되어버린 《아모》도 보이고있다.

아모 모 某 (《류합》 하 6)

운 아모논 이명부의 아들이오 (《명의록언해》 하 5)

하나의 별이나 바라보며

천년만년-아모 근심없이 살았을것을

(《소원》 로자영)

옛 어휘의 일부를 보존하고있는 현상은 1920년대 서정시들이 고어를 많이 간직하고있던 근대문학으로부터 현대문학으로 갓 넘어온 사정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서정시의 향토적운치를 위하여 활용되었으나 후에 잘 쓰이지 않아 전인민적인정을 받는 어휘로 되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것도 이 시기 서정시언어의 어휘적특징으로 된다.

불서럽다: 몹시 서럽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라 오, 불서러워

(《접동새》 김소월)

재갈이다: 《재갈재갈하다(여럿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저희들끼리 귀엽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모양)》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주린 새 무리는 마른 나무의

해지는 가지에서 재갈이던 때

(《물마름》 김소월)

애집다: 애되고 수집다

아아, 오기는 더디고 가기는 빠른

그대의 애집은 짧은 생명아

(《꽃지기보다도》 로자영)

망상거리다: 《자꾸 망설이다》의 속어

저마다 외로움의 깊은 근심이

오도가도 못하는 망상거립에

(《오는 봄》 김소월)

물지르다: 천천히 물들여지다

나의 그대여 그러나 그러나

물질러와라 붉게도 붉게도

(《제물포에서》 김소월)

이러한 단어들을 《잠재적어휘》로 본 견해가 있다. 다시말하여 해당한 단어가 김소월과 같은 개인에 의하여 여러번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전인민적단어의 사실》로는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단어부류를 《잠재적어휘》라고 볼수 있다는것이다.

사실 어떤 어휘가 해당 민족어어휘구성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사전과 기타 출판물에 올랐는가 오르지 않았는가 하는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할수 없다. 우의 단어들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년]에 올라있으나 현재 언어생활에서 거의나 쓰이지 않고있다. 반면에 《판치다(버리다), 땡쓰다(어리석은체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일정하게 입말생활에 쓰이지만 사전에 올라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각이한 사람들에 의하여 각이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상징부사의 변종들을 비롯하여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을수 있는것이다.

지어 《해적이다》와 같은 단어는 김소월의 여러 시에서 동시에 나타나고있는것으로 보아 그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즐겨썼다고 볼수 있다.

꿈은 령의 해적임, 설음의 고향  
울자 내 사랑, 꽃지고 저무는 봄  
(《꿈》 김소월)

내 사랑 둥근해가 솟아오른다  
내 사랑 둥근해가 해적어린다  
(《둥근해》 김소월)

내여던진 풀잎이 열게 떠갈제  
물살이 해적해적 품을 헤쳐요  
(《풀따기》 김소월)

파릇한 풀포기가 돌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개여울》 김소월)

이 단어는 언어사관계자료들에도, 사전에도 없지만 우에서 지적된 시들에서의 쓰임을 놓고보면 《하느적이다》와 련관된다고 볼수 있다.

결국 1920년대에 창작된 서정시들에 나타나는 특이한 어휘는 개별적시인의 언어미학적관점에 의하여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한때 우리 민족어어휘의 한 부분이였다는 점에서 언어사적가치를 론할수 있다.

다음으로 시적운률과 정서를 조성하기 위한 어음론적, 문법론적기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이다.

단어형태의 줄이기와 늘이기는 시문학에서 아름다운 운률을 조성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기 서정시에서는 이러한 기교가 널리 쓰이었는데 그것이 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운률조성적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줄이기의 실례:

해 벌써 석양인데 불쑸는 바람이여 (《랑인의 봄》 김소월)  
불쑸는 - 불어스치는

산모루 도는 손의 슬지는 바람이여 (《랑인의 봄》 김소월)  
슬지는 - 스러지는

명일의 새론 희망 안은 그대로 (《겨울》 김억)

새론 - 새로운

저녁놀 스러지는 바다는 어디 (《바다》 김소월)

저녁놀 - 저녁노을

그러나 그리해도 헤날길 없어 (《야의 우적》 김소월)

헤날길 - 헤어날길

늘이기의 실례:

보옴이 다 가기 전 이 꽃이 다 지기 전 (《그리워》 김소월)

보옴이-봄이

심심산천에 파아란 불빛은 (《금잔디》 김소월)

파아란-파란

비탈길 발쪽에 샅샅이 조을고 (《시악시 마음은》 홍사용)

조을고-줄고

가비엽고 서늘한 가을님이여 (《가을》 로자영)

가비엽고-가뵈고

비인 뜰에 혼자서 서른 탄식 (《기도, 꿈, 탄식》 김명순)

비인-빈

이러한 줄이기와 늘이기는 해당 시의 정서에 맞는 음악성과 문학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은 정상적인 단어형태를 변화시켜 고도의 운률성을 보장하는데서 특이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진달래꽃》 김소월)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진달래꽃》 김소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진달래꽃》 김소월)

우의 시행들은 서정시 《진달래꽃》가운데서 1, 2, 4련의 마지막구절들이다.

여기서 《드리우리다, 뿌리우리다, 흘리우리다》는 문법구조적으로 완전히 일치한 형태를 가지고 잘 짜인 운률을 조성하고있다. 이 단어들의 형태구조를 분석한다면 말뿌리에 《우》라는 말소리와 의지를 나타내는 법토 《리》, 종결토 《다》가 교착된 상태에 있다.

문제는 《우》에 있다. 조선어에서 《우》라는 어음구조를 갖춘 토는 종결토를 제외한다면 상토뿐이다. 그런데 《드리우리다, 뿌리우리다, 흘리우리다》에는 사역이나 피동의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상토라고 말할수는 없다. 시에서 말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사상감정을 나타내는데 상토는 아무러한 필요도 없기때문이다.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는 의지를 나타내는 법토 《리》면 충분하다.

결국 서정시 《진달래꽃》에서 《우》는 본질에 있어서 토로써 쓰인것이 아니라 운률을 조성하고 음악성과 민족적색채가 진하게 풍기게 하는 작용을 담당하고있다.

우리 말 표현의 풍부성의 한 측면은 형용사 《불그스레하다, 들크무레하다, 어슴푸레하다》의 《스레, 무레, 푸레》와 같이 해당 형용사의 의미를 섬세하게 구분하여주는 뒤불이에 의하여 나타나다.

여기서 《스레, 무레, 푸레》는 조선어의 대표적인 어음론적과정의 하나인 앞모음되기에 의하여 변화된 결과로 오늘과 같은 어음구조를 갖추게 되었는데 1920년대 서정시에서는 앞모음되기에 의한 변화이전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쓰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아무리 보아도  
밝은 등불 어스렷한데

(《밝은 꼬꾸요》 김소월)

퍼르스런 달은, 성황당의  
군데군데 헐어진 담모도리에

(《찬 저녁》 김소월)

실버드나무의  
검으스려한 머리결인 낱은 가지에

(《봄밤》 김소월)

우뚝우뚝한 나무그림자  
물위에 어슴푸러히 떠오르는데

(《제물포에서》 김소월)

잎새들만 저녁빛에 희끄무러히 꽃 지듯한다

(《반달》 김소월)

앞모음되기 이전의 발음을 그대로 보존하는 현상은 《바람개비, 도깨비》의 이전 단어 《바람가비, 도까비》를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풀무는 바람가비외다 바람가비는  
바람과 도까비의 어우름자식이외다

(《술》 김소월)

문법구조는 어휘현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고한 체계를 갖추고있지만 여기에도 해당 시대 언어의 내적구조의 특성이 적으나마 반영되지 않을수 없다.

1920년대 서정시가 오늘날에 와서 현대시와 꺾 다른감을 주는 이유는 어휘적인 요인도 있지만 문법구조적인 특성과도 련관되어있다.

먼 바다 바라보며 우두키 서서  
나 지금 청령따라 웨 가지 않노?

(《거친 풀 흐트러진 모래동으로》 김소월)

우두키 문어구에 혼자 섰으면  
 흰 눈의 잎사귀 지연이 뜬다  
 (《지연》 김소월)

현대조선어의 《우두커니》라는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 《우두키》의 형태를 분석하면 《우독+히》로서 우의 시들에서는 부사조성의 뒤불이 《히》의 쓰임이 이 시기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상토가 레외적으로 쓰인 실례도 있다.

꽃지고 잎떨린 가지를 불안고  
 미친듯 울면서 지는 봄날에  
 (《첫 치마》 김소월)

《떨린》은 《떨어진》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쓰이면서 운물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떨어지다》는 피동상의 형식을 취한 단어로서 실제적의미가 능동이든(《락하산병이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피동이든(《바람에 떨어지는 락엽》) 상관없이 쓰이며 사역형으로는 《떨구다》(《폭탄을 마구 떨구었다.》), 《떨어뜨리다》(《그만에야 쥐고있던 책을 떨어뜨렸다.》)가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공고화된 현상으로서 《빠르디다, 써러디다, 썰러디다, 뻘러디우다, 써르티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상토 《리》가 이 단어와 련관된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시 《첫 치마》에서는 피동의 의미로 《잎떨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한것이다. 이것은 언어의 내적구조의 특성에는 관계없이 순수 운물조성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한그릇밖에 안되는 《사랑의 료리》를  
끌고롭게도 숨씨있게 나누어서는  
 (《일일삼천심》 김억)

《고루》라는 부사가 중복된 《고루고루》의 준말인 《끌고루》는 현대조선어에서 형용사조성의 뒤불이 《롭》과 결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합은 단어조성론적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것은 광범위한 사회적언어의식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롭》은 중세조선어의 뒤불이인 《롭》의 후기적현상으로서 근대에 와서 쓰임이 줄어들어 현재 《지혜롭다, 슬기롭다, 따사롭다, 은혜롭다》와 같은 단어들에 국한되어 사용되고있다.

김억이 활용한 《끌고롭게도》라는 단어형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료리》를 사람들에게 숨씨있게 나누어주는 비유적행동에 대한 쓸쓸한 야유의 문체론적효과를 조성하는데 복무한다고 볼수 있다.

말들어라, 애뜻한 이 여자야, 사랑의때문에는  
 모두가 사나운 조짐인듯 가슴은 뛰놀아라  
 (《몹쓸 꿈》 김소월)

《사랑의때문에는》이라는 구절은 속격형태의 독특한 쓰임에 기초하고있다. 속격은 소속 및 규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호상 관련의 의미를 나타낸다. 속격로 《의》의 뒤에는 《조국의 아침》에서처럼 완전명사가 오는것이 일반적인 합법칙적현상으로 되며 불완전

명사 《때문》은 체언의 뒤에 붙거나(《너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니?》), 《~기때문에》의 형식으로 쓰이면서(《우리는 준비를 다했기때문에 바쁠것이 없다.》) 그것이 뒤에서 벌어지는 사실의 원인으로 됨을 나타낸다.

그런데 《사랑의때문에》이라는 구절에서는 속격로 《의》가 본래의 고유한 문법적의미가 아니라 불완전명사 《때문》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시적인 흐름을 조성하는데 쓰이고있다. 다시말하여 실제적인 진술내용을 전달하는데서는 《사랑때문에》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서정시말고도 1920년대를 전후하여 속격형태가 레외적으로 쓰인 다른 실례도 있는데 그것은 주격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아름답고 귀한 나의 조선반도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바니  
(《조선반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고향의 봄》)

서정시 《몹쓸 꿈》과 우의 실례들을 종합하여볼 때 속격형태는 자기의 본래 의미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도 쓰이면서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왔음을 알수 있다.

1920년대 서정시문학은 시대적제한성과 시인들의 사상미학적제약성으로 하여 그 사상 감정이 주로 울분, 애수, 비애에 치우치고 낡은 한자어와 방언적어휘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한 심각한 결함들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조국의 아름다움과 향토,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노래하려고 한 시인들의 애국적지향과 함께 당대 민족어의 실태, 문학언어에서의 민족어활용 등 귀중한 자료들이 반영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 1920년대 서정시는 민족문학유산으로서뿐만아니라 언어유산으로서도 응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실마리여 바드럽다, 하느적이다